

[신간소개]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 사랑과 결혼편'

세상 스펙에 매달려 사랑과 결혼을 빼앗긴 30대를 향한 30대의 메시지
설교 강단에서 들리지 않는 30대의 사랑/결혼을 편지로 풀어
30 대 신자들을 읽어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뛰우는 30대의 편지
흔밥, 훈슬, 혼영 시대에 던지는 30대 기독 청년의 도전장
헬조선 시대 30대에게 주는 사랑과 결혼의 의미는
이용도(1901~1933) 목사 연구가 정재현씨, 30대적 생활영상을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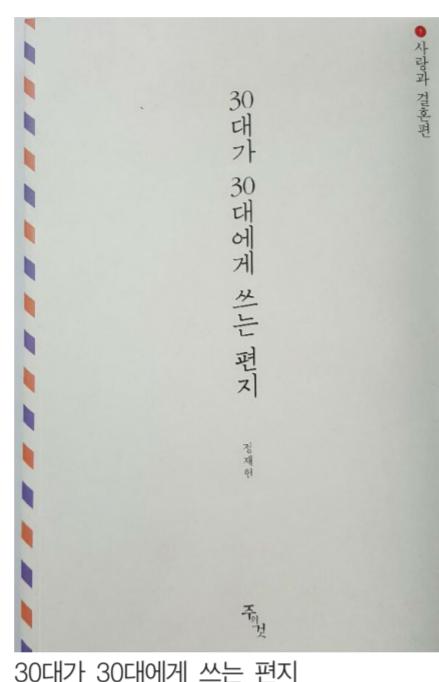
오늘날 30대는 교회의 '관심망' 밖으로 밀려난 듯하다. 그들이 겪는 삶의 근심사인 사랑, 결혼(또는 혼인), 직장 등의 주제에 대해 설교 강단은 인색하다. 30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생에서 결정적인 그런 주제들은 귀가 많도록 들었던 교훈들 아래 덮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30대는 시간과 체력이 그리 넘기지 않다. 먹고살려는 밤바蠹만으로도 충분히 지쳐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30대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제들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30대에게 교회는 그 만큼 더 멀게 느껴질 것이다.

교회는 오랜 신앙생활로 잘 다져진 30대들에게 중요한 봉사들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삶이 버거운 30대는 더욱 부담과 거리감을 느낀다. 30대의 피부에 묻는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30대 유실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저자의 문제의식은 출발했다.

"누가 알아서 말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저자 정재현(34) 씨는 30대에게 말을 불이기로 결심하고 성경 앞에 앉았다.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에 뒤로 미루어버렸던 사랑,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증언들을 최대한 수집했다. 그 다음 경험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사랑과 결혼편

자들의 증언을 경청했다. 싱글과 커플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는 발견과 통찰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하여 책은 '남' 이야기가 아니요 '벗' 이야기도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의 이야기가 되었다.

책에는 사랑에 대한 편지 40통과 결혼에 대한 편지 40통이 담겨 있다. 편지들의 제목이 흥미롭다. 연애에 있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십자가적 사랑을 연애에 적용함', 아가서와 조선 시조를 병행시키면서 은혜를 받고자 꾀한 '아가서와 조선 시조'가 관심을 끈다.

국어 문법에서 사랑의 감정들을 찾아낸 '국어문법과 사랑노래', 30대의 사랑이 늦은 것이 아니요 더 유리할 수 있음을 호소하는 '성숙한 사랑은 30대에 더욱 가능성 있음', 그리고 '나의 재건축으로서의 결혼', '쇼핑몰 광고와 결혼', '사랑의 유통기한과 음미' 등도 눈길을 잡아당긴다.

부부의 신학적 의미를 다룬 편지들도 있다. 부부를 최소 단위의 교회이다, 예전에 있었던 최초의 교회 그리고 새 하나님과 새 땅에 있을 때 있을, 그리스도와 성도들

이 신랑신부를 이루는 최후의 교회로 설명하는 '최초의 교회 최소의 교회 최후의 교회' 부부의 동반자적 의미와 함께 동역자적 의미를 추구하는 '소울 메이트에서 미션 메이트로' 등이 그것이다. 신명기, 임언, 전도서, 애비소서 등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도 탐구한다.

인생의 3분의 1을 25개국에서 보낸 정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사회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값 매긴다고 고집된다. 행복이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종류인데, 한국에서는 행복이 숫자로 계산되지 않느냐고 했다. 정씨는 이러한 사회를 '한국 공장'이라 불렀고 자신을 포함한 현 30대들이 그곳에서 생산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편지를 통해 한국 공장에 생명적 반란을 꾀하자고 했다. 이는 숫자보다 사람이고, 스펙보다 사랑임을 나타내는 투쟁을 하자는 것이라 한다. 이 싸움의 대열에 함께 서 전진할 새날의 반군들을 모집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앞서 340일간의 유럽 자전거 여행기 <젊은 날의 발견>(2006년)을 출간했다. 또 한국교회가 배출한 걸출한 신양가인 이용도(1901~1933) 목사 연구가로서 <이용도 목사 평전 : 기독교의 재출발>(2014년), <이용도 목사 시편 : 주님 이 들어오시는 문>(2014년), <이용도 목사 365 묵상집 : 진리를 드소서>(2015년), <이용도 목사 이단론 비판 : 주의 것들의 노래>(2016년) 등을 펴냈다.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 사랑과 결혼편>은 그의 일곱 번째 저서이다.

정씨는 30대 중반까지 싱글이었고, 한때 선교를 위한 독신의 삶을 주장하고 꿈꾸었다. 그러나 <30대가 30대에게 쓰는 편지 : 사랑과 결혼편>을 구상, 준비하면서 사랑과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였다. 책을 쓰면서 사랑에 빠졌고, 책을 출간하면서 결혼에 골인했다. 전에는 혼자였으나 이제는 함께라면서, 이것이 보기에 심히 좋다고 그는 말했다.

조은식 기자

문화

컴패션 후원자들, 직접 후원의 기쁨 나누고 어린이들 돋는다



제아(브라운아이드걸스) 컴패션 후원자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컴패션 제공

이번 '나누기 더하기' 행사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어린이 후원을 통한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문의: 02-3668-3516)

한편, 한국컴패션 후원자들은 지난 8월 2박3일간 자전거로 제주도를 일주하고 컴패션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워터필터를 선물하기 위한 모금행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2월에는 대전·충청지역 후원자들이 올레길을 걷고 기부하는 모금행사를, 인천지역 후원자들이 자전거로 후원의 열매 또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모두 일반인홍보대사(VOC)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컴패션 애드보க팀 담당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며 "매년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후원자를 만나는 열매가 있었는데, 이번 행사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컴패션(Compassion)은 전 세계 26개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MY KIDS 캠페인 참여방법!

①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② 모바일웹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mykids.wv.or.kr

온라인 후원을 하시면

1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날아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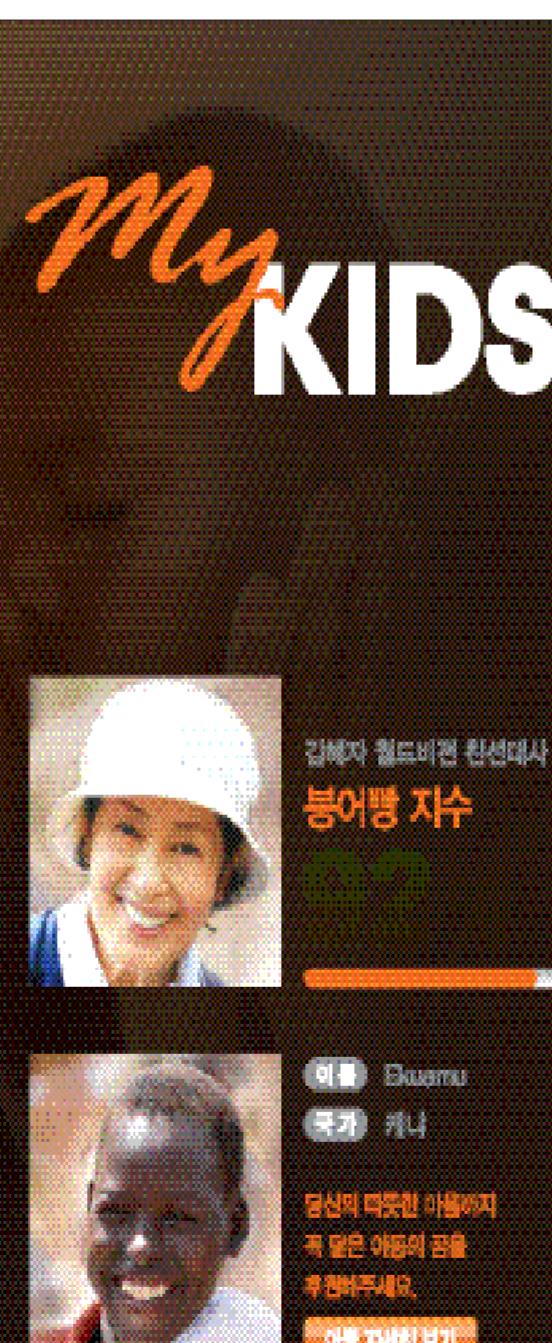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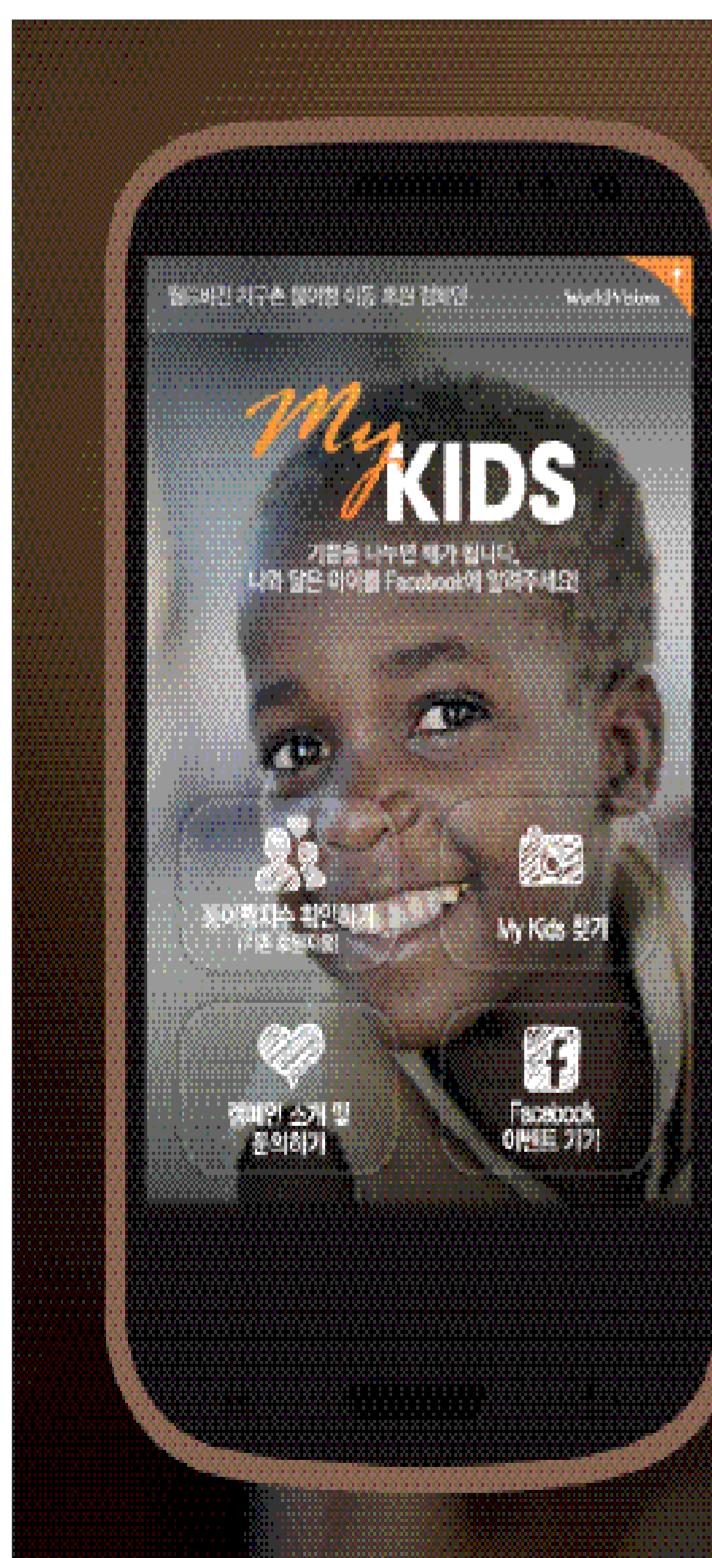
2 아동의 편지를 교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마음이 사는 자리를 방문하여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 1회 아동연례활동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지원

1 월 3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태아에 혜택을 줍니다.

2 아동후원은 할 아동의 배고픔을 없애 줄을 기우고 한 아동의 희망이 됩니다.



“나눔요?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빵집 아저씨의 ‘특별한 나눔’

겨울에만 자선냄비 모금하라는 법 없죠 한여름의 ‘자선냄비’ 저금통

경기도 분당의 한 제빵전문점. 이곳 점장인 전승태 씨의 아침은 다른 사람들의 아침보다 조금 더 분주하다. 비가 촉촉히 내리던 지난 8월의 어느 아침, 버스 정류장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떠나 보내고 익숙한 손길로 와플을 구워내고 있는 전승태 씨.

같은 시간 전 씨의 매장과 다소 떨어져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쓴 채 출근길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 씨의 매장을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이곳 매장 매출이 전국 체인점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러나 아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판매대. 이곳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를 겨냥해 이들이 전 씨의 매장을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이곳 매장 매출이 전국 체인점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김만영 칼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이선규 칼럼] 변화의 계절

예전에는 이 민을 때 정착 금 없이 미국에 온 사람들은 많았다. 그 러다 보니 살기 바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전해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쳐 미국사회에 적응하며 잘 성장해 갔지만 부모세대는 한국 사회에 묶여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문화적 차이로 부모 자식간에 간접불화가 확대되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녀교육서의 고전으로 알려진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저자인 하임 기너트 박사는 책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끝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손님 대하듯 해야 하며 아이들을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 전달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체면을 세우면서 아이들에게는 지시에 따르라고 하며 중간에 맡을 끊거나 무시해 버린다.

이러면 자녀들은 속으로 부모와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같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녀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격적인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본다.

가끔 시간이 나면 함께 점심을 함께 하는 LUNCH TIME 갖기를 권한다. 주중에 한번 시간을 내 함께 식사 시간을 가져보는 거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자녀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1. 자녀들에게 사랑하라(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라. 콩나물이 물만 주면 쑥쑥 잘 자라듯

사랑의 물을 주며 잘 자라도록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이 토대가 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의 의견을 제시는 하되 부모가 원하는 시시나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잘못이나 불성실함까지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스스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포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어찌보면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2. 자녀들에게 이해하라(Understanding)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는 의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짜증나게하거나 다른 걸 접 아들과 비교해서 아이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는 뜻이다. 빌 게이츠가 미국 명문인 하버드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하고 취직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역시 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몇몇 며칠을 심사숙고한 끝에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줬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떠난다’는 말보다는 ‘돌아오겠다’는 말을 더 믿고 기다렸다”고 〈포천〉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통화를 자주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일방적 학습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주는 교육법을 택했다.

3. 자녀들에게 주목하라(Notice)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다. 자녀들은 다른 가정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다. 부모는 끝까지 참으며 자녀들에게 주목하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친구처럼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여려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돋는 것도 자녀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덕목은 오직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목하여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사춘기의 부모들은 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참는 것이 해결책이다.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자녀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무슨 걱정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에 주목을 하되 먼저 부모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부모는 항상 주목해야 한다.

4.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라(Courage)

잔소리하거나 이웃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된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아이 편을 들거나, 반대로 무조건 아이를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든, 피해를 봤든 마음에 입은 상처를 생각해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5. 자녀들을 도우라(Help)

아이를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도록 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도와줘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도와달라는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지말고 부모로서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같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써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 어떤 교육적인 방침이나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훈련으로는 사회규범을 지키듯 지킬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 졌다. 다문화 센터 앞에는 중학교가 있고 학교 울타리 옆에 울창한 은행나무가 줄을 서 있다.

마침 길을 나서다가 청소하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다.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 인사를 하자 그 분에게 전해 오는 말 가을이 오는 것이 “끔찍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끔찍하다는 것이다.

잠시 주고받은 말에서 잎이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한참동안 나무를 바라보아도 깊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낙엽을 치우는 일은 고여야된다. 잠시 가을 낙엽에 대한 상념에 젖어 본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가면서 나무들은 여름내 입고 있었던 녹색의 잎을 바꾸어 페어질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옷으로 채색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단풍은 녹색 잎의 변신이며 또한 변화이다. 페어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하늘나라는 변화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우거짐은 잠시 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단풍은 화려함으로 나무 가지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있으려고 발바둥 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체념에 젖은 듯 자신이 거름으로

로 희생 되는 것, 바로 이 희생으로 나무를 튼실하게 부추겨 주고 튼튼하게 키워 주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 열매를 맺게 하고 몇 겹의 성을 쌓아서 열매를 보호 한다.

바로 이것이다. 단풍의 아름다움으로 오래 머물리 있지 않고 아름다움이 절정으로 변화 되어 지는 순간에 그 모두를 내려놓고 출연히 떠나는 것, 가을 나뭇잎의 지혜이다.

이시야 선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에 피는 꽃과 같다.” 인생무상을 말하는 것일까. 전도서의 기록을 보자.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라고 설�파했다.

유양업님의 시구를 들어 본다.

풀들이 채색 입 아랫운 풍경화
가을 맞게 갈아입고 반짝 이네 빨강
분홍 입에 물고
둥지 지켜 노닌 새들 갈 바람 타고 살랑 살랑
춤추며 노래하네 하늘이 솔 솔 그려준
황홀한 색깔 덧입혀 마을 마다 산야다
불이 타네

‘나는 헛빛을 잠시 등 돌리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낙엽이 되지만 나는 거름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라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하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 본다.

마침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반겨 준다. 손주가 벼룩없이 종횡 무진이. 몇 마디 짚은 말을 건네니 아내의 말 ‘이제 다 젊어 두리’라고 한다. 늙어의 ‘위장’편에는 공자의 간단명료한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다.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목표를 세웠고, 40세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며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며, 60세에 듣는 대로 깨달았으며 70세가 되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은 늙어 갈수록 완숙해 진다는 뜻이요, 동시에 사람은 자기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리라.

정녕 깨끗하게 늙어 간다는 것은 향기로운 일이다. 그러나 만큼 세상만사에 참견이나 하고 넋두리나 반복하며 사는 추한 노인이 아니라 인생 마무리를 잘 구상해 본다. 낙엽의 인생이 되어 보리라고 다짐해 본다.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자기 소유에 집착한다. 명예나 재물, 심지어 지위나 업적에 대해서 마치 사람은 내려놓기를 망설인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지치리만치 집착할 때 사람은 그 마지막을 향기롭게 마치지 못 할 때가 많다.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을의 변화를 꿈꾸어 본다. 변화의 계절과 함께…….

[아침을 여는 기도]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멀시 받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사람들에게 멀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의 인내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이 시작되는 때에 잘 견디어나이에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될 때에도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속일 때에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바른 신앙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2천 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시어, 유대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힘들고 아프지만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상이 되었다고 악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배신을 당했지만 끝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옵소서. 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을 것이다.”마 24:13) 꺾어 세운 봉우리 힘한 계곡 가운데에서 힘이 들 때에 내리막길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

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고통의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희망의 오르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배신을 당하면 사랑하고, 빼앗기면 베풀고, 고난을 당하면 용서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스페란을 둘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한 유다의 밭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의 승리, 사랑의 승리, 소망의 승리를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주시는 최후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의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www.eostbank.go.kr